

이준형 굳히기냐

평창행 마지막 승부

차준환 뒤집기냐



안정적인 연기로 꿈의 무대에 바짝 다가선 이준형(왼쪽)과 퀴드러플(4회전) 점프를 앞세워 뒤집기예나서는 차준환.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 오늘~7일

이준형 1·2차 1위...차준환 27.54점 차 맹추격

여자 싱글 최다빈 확정적...김하늘·안소현 2위 다툼

평창 문턱까지 간 '형' 이준형(단국대)의 굳히기일까, 무서운 '아우' 차준환(위문고)의 막판 대역전극일까.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대표 선발을 위한 마지막 일전인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이 오는 5~7일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다. 세 차례 선발전 가운데 최종 선발전인 이번 대회에서 남자 싱글 1장, 여자 싱글 2장의 주인이 가려진다.

남자 싱글에서는 이준형이 1·2차 대회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차준환이 점프 실수로 고전하는 사이 이준형이 지난해 7월 1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우승자 자격으로 9월 네벨혼 트로피에 출전해 한국 뉘으로 귀중한 평창행 티켓 1장을 확보해왔다.

1차 선발전에서 김진서(한국체대)에 이어 3위에 그쳤던 차준환은 2차 대회에 부진했던 김진서를 제치고 2위로 치고 올라와 평창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이준형의 점수는 1차 228.72점, 2차 230.40점을 합쳐 459.12점, 차준환은 1차 206.92점, 2차 224.66점을 더해 431.58점이다. 27.54점의 작지 않은 점수 차여서 일단 유리한 쪽은 이준형이다.

한국에 16년 만의 남자 싱글 올림픽 티켓을 안긴 이준형은 자신이 따른 티켓을 자신이 사용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선발전에 임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퀴드러플(4회전) 점프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난도는 높지 않아도 안정적인 연기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차에서 더 높은 점수로 1위를 지키는 저력도 보여줬다. 마지막 선발전에서는 퀴드러플 점프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던 이준형은 이번 대회에서 큰 실수만 없으면 평창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준환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이번 시즌 부상 악재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차준환은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다. 2차 대회 점수도 1차보다 18점 가까이 상승했다. 차준환이 지난 3월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받은 개인 최고점이 242.45점임을 감안하면 27.54점 차이

역전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당시 프리 스케이팅에서의 퀴드러플 점프 실수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개인 최고점이었다.

2장의 티켓이 확보된 여자 싱글의 경우 최다빈(수리고)의 평창행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2위 싸움이 뜨겁다. 최다빈이 1·2차 합계 350.16점이고 그 뒤를 김하늘(명중중)이 두 번의 선발전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며 333.35점으로 쫓고 있다. 안소현(신목고)은 2차 대회에서 주춤하며 김하늘에 총점이 13.42점이 뒤진 3위다. /연합뉴스

KIA 3월 24일 챔스필드서 개막전

KBO 정규시즌 일정 발표

애프터 게임 출전...개막 앞당겨

3월 13일부터 시범경기

'호랑이 군단'의 2연패 도전이 3월 24일(토) 챔피언스필드에서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4일 2018시즌 정규시즌 경기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정규시즌은 3월 24일 개막해 팀당 144경기, 팀 간 16차전(홈 8, 원정 8)씩 총 720경기가 열린다. 1982년 KBO리그 출범 이후 가장 이른 개막이다.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참가로 KBO 정규시즌이 일시 중단되면서, 개막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시범경기 일정도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팀당 8경기씩 치르는 것으로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진행됐었다.

개막전은 2016년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구장에서 실시한다는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 문학, 광주, 고척, 마산 전국 5개 구장에서 치러진다.

2016시즌 5위인 KIA 타이거즈는 '막내' kt 위즈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개막 2연전에 나선다. KBO 정규시즌의 토요일 개막은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2016년 4위였던 LG 트윈스는 잠실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산 베어스가 2016년 우승팀으로 홈 개막전을 치르면서 원정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다. 대신 6위 SK 와이번스가 홈 개막전을 갖게 됐다.

개막을 원정으로 치르는 LG,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kt 등 5개 팀은 3월 30일(금)부터 주말 3연전으로

홈 개막 시리즈에 나선다.

kt를 상대로 개막전을 갖는 KIA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과 주중 3연전을 치르는 등 홈 5연전으로 2018시즌을 연다. 첫 원정지는 잠실로 3월 30일부터 LG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KIA는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도 안방에서 치른다.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LG(두산전), KIA(NC전), SK(롯데전), 삼성(한화전), kt(넥센전)의 홈경기로 진행된다.

KBO 올스타전은 7월 14일(토)에 열릴 예정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KBO는 "2018년 경기일정은 구단별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주말 및 공휴일 홈 경기수와 월별 홈 경기수 등을 최대한 고려해 균등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코치진, 패기의 1군·미래의 2군

1군 홍세완·서재웅·김상훈·김민우 코치

KIA타이거즈가 4일 2018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패기의 1군, 미래의 2군이다.

올 시즌 새로 1군에 합류해 선수단을 이끌어 갈 멤버는 홍세완 타격코치, 서재웅 투수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다.

조계현 단장을 대신해 정회열 수석코치로 큰 틀을 짤 KIA는 코우조 일본인 코치와 함께 홍세완 코치에게 타격 조언 임무

를 맡겼다. 지난 시즌 코우조 코치와 호흡을 맞췄던 박흥식 코치가 2군 감독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변화다.

해설자에서 코치로 변신한 '초보 코치' 서재웅은 이대진 코치와 젊은 KIA 마운드를 움직이게 됐다. 2009년 우승 멤버이자 우승팀 주장이었던 김상훈도 지난 2년간의 코치 경험을 살려 1군에서 동행할 한다.

지난해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김민우 코

치도 김민호 코치를 도와 수비 코치로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외에 김중국 주루 코치, 배요원·정상욱·고영득 트레이닝 코치로 1군 코치진이 구성됐다.

박흥식 감독이 지휘하는 퓨처스팀은 김선진·박재용 타격코치, 유동훈·홍우태 투수 코치, 김창희 수비코치가 함께 한다. 지난 시즌 1군에서 우승의 순간을 함께 했던 다케시 배터리 코치와 김태홍 수비 코치는 타이거즈 미래를 위한 육성에 투입된다.

3군 및 재활군은 백인수(개명 전 백인호) 총괄코치, 신동수 투수 코치, 김성규 수비 코치, 김정수 재활 코치가 담당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니퍼트, 이젠 kt맨

연봉 등 100만달러 계약 합의

두산 베어스와 재계약이 불발돼 은퇴 위기에 몰렸던 터스틴 니퍼트(37)가 kt wiz에 새 등지를 쓴다.

kt는 4일 니퍼트와 연봉 포함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kt는 이날 니퍼트의 메디컬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상 없이 통과되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임종택 kt 단장은 "구위, 이닝 소화력 등 에이스 투수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KBO 리그 적응력, 인성과 성실성 등이 검증된 니퍼트를 올 시즌 외국인 투수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니퍼트는 2011년부터 7년 동안 두산 마운드를 지킨 KBO리그 최장수 용병이다.

통산 94승 43패 1홀드 평균자책점 3.48의 성적을 남기며 두산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2016년에는 정규시즌 최우수 선수(MVP)와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그러나 두산이 니퍼트의 노쇠화를 우려해 재계약하지 않고 롯데 자이

언츠 출신 조쉬 린드블럼과 신임 세스 후랭코프를 외국인 투수진을 꾸리면서 니퍼트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kt는 지난 시즌 에이스로 활약한 라이언 피어밴드와 재계약하고 다른 외국인 투수를 모색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임 단장은 "당초 영입을 추진했던 선수들의 다수가 메이저리그 잔류나 일본 리그 진출을 결정해 영입이 지연되고 있고, 스프링캠프 합류 등 차질 없는 시즌 준비와 적응을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영입 가능한 미국 리그 선수들과 돈 로치를 포함해 KBO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니퍼트가 팀의 전력 상승에 가장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압도적인 구위를 갖춘 투수를 원했다. 니퍼트가 큰 키에서 내뿜는 시속 150km 이상 강속구를 올해도 유지한다면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연합뉴스

北 노르딕스키 마유철·김정현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한다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장애인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할 북한 대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북한 장애인 체육을 지원하는 미국 민간단체 칸슬러 재단의 신영순 대표는 4일 "북한의 장애인 노르딕스키 선수인 마유철(27)과 김정현(18)이 현재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며 "북한이 평창패럴림픽에 출전할 경우, 해당 선수 두 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어 "두 선수는 지난달 백두산에서 10여 일간 캐나다 코치와 함께 훈련했으며, 9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스키장에서 동계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두 선수는 21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오베리드에서 열리는 2017-2018 월드 파라노르딕스키 월드컵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다리 절단 장애를 가진 마유철과 김정현은 노르딕스키 좌식 경기에 나선다.

해당 대회에 출전할 경우 국제패럴림픽 위원회(IPC) 선수 등록 과정을 거쳐 평창패럴림픽 와일드카드 출전 자격도 얻을 전망이다.

이미 IPC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에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장애인 노르딕스키 마유철과 김정현은 IPC에 등록된 북한의 첫 동계패럴림픽 선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에 선수 1명(임주성)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에선 선수 2명(송금정, 김철웅)을 출전시켰다. /연합뉴스